



HISTORY

1887
대량 생산 멸균 봉합사 발명

존슨앤드존슨은 대량 생산 멸균 봉합사(캣거트 또는 실크 봉합사) 발명을 시작으로 외과용 드레싱, 면 및 거즈 제조를 시작한다. 이는 현대적인 무균 수술의 시작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내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

1894
산업용 증기 멸균기 개발

독일 과학자 로버트 코흐의 발견을 바탕으로 존슨앤드존슨은 1890년 산업용 증기 멸균기를 개발했다. 그 이전에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품을 살균해야 했다. 이 기술은 회사의 멸균 수술 용품 생산을 가속화했을 뿐만 아니라 각 제품에 균이 없는 단일한 환경을 보장했다.



HISTORY

1888
<무균상처치료를 위한 현대적 방법> 출판

존슨앤드존슨이 출판한 <무균상처치료를 위한 현대적 방법>은 무균 수술에 대한 표준 매뉴얼로 자리잡았다. 이 가이드에는 무균 수술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과 안전한 수술에 도움이 되는 회사 제품 카탈로그가 포함됐다. 존슨앤드존슨의 영업 사원은 미국 전역의 약사,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이 안내서를 배포했으며, 몇 달 만에 약 85,000개의 사본이 배포됐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 가이드는 3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450만 부가 배포됐다.



HISTORY

1907
RED CROSS CATGUT NO. 1 LIGATURES

존슨앤드존슨의 제1호 적십자 캣거트 결찰사(Red Cross Catgut No.1 Ligatures)는 1900년대 초반 의사의 가방과 수술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료용품이었다. 1917년 까지 회사는 매년 약 3,048km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캣거트 결찰사(Catgut Ligatures) 제조업체가 됐다.

1907
거즈 공장에 벨트 구동식 시스템 적용

1907년 이전에 존슨앤드존슨 거즈 공장은 증기 기계로 살균된 드레싱과 거즈 봉대를 대량 생산했다. 그 해에 회사는 공장을 전기로 전환했지만 벨트 구동 기계는 남아 있었다. 이는 각 기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가 중앙에서 생성되고 난 후 벨트 및 도르래에 연결된 라인 축을 통해 생산 시설 전체에 분배되는 것을 의미했다.



HISTORY

1920S
바늘 달린 봉합사 MERSUTURES의 개발

봉합사 제조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약사 조지 머슨(George Merson)은 바늘의 영덩이 부분을 통해 미리 부착된 단일 가닥의 재료를 사용하여 바늘이 바늘이 부착된 봉합사를 발명한다. '머수처(Mersutures)'의 개발은 기존 이중 가닥 봉합사 사용시 피부를 통과하며 발생하는 조직 손상을 감소시켰다.

1949
에티콘 봉합사 연구소의 시작

존슨앤드존슨은 머슨의 회사를 인수하여 회사의 기존 봉합 사업에 흡수하고 새로운 대기업인 ETHICON Suture Laboratories로 이름을 변경한다. 1953년에 회사명은 ETHICON Inc.로 변경되었다.



HISTORY

1960
방사선 멸균 기능 개발

에티콘은 봉합된 봉합물에 방사선을 쏘아 멸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 기술은 봉합사가 이미 최종 포장단계에서 밀봉된 후 멸균되어 박테리아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 당시 새로운 기술이었다.

1969
PROLENE 봉합사 개발

에티콘이 출시한 폴리머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합성 멸균 봉합사 프롤렌은 현재까지 심장 우회 수술시에 가장 필수적인 제품으로 남아 있다. 늘어나는 특성과 조직을 찢지 않기 위해 심장 수술의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HISTORY

1974
VICRYL 봉합사 출시

에티콘은 흡수성 봉합사 '바이크릴(Vicryl)'을 선보인다. 바이크릴은 복선 형태의 봉합사로, 보다 튼튼하고 유연하다.

1979
COATED VICRYL 개발

에티콘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바이크릴에 코팅을 하여 핸들링이 용이하며 주변 조직에 대한 손상을 감소시킨 '코팅된 바이크릴(Coated Vicryl)'을 선보인다.